육태진의 작업 그리고 ‘붕괴된 주체’의 질병

김원방

육태진의 작업에서는 하나의 깊은 '질병' 같은 것이 발견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요 모티브로 사용된 '끊임없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인물(또는 작가 자신)'의 비디오적 재현은, '자기'라는 것을 선적線的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축되는 하나의 '행적 biography'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방향을 향해 일관되게 걷고 오르는 행위들은, '통합된 자기' 혹은 '개인적 삶과 역사에 대한 권력적 주재자로서의 자기'라는 의식意識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육태진은 이러한 '통합된 자기'에 대한 의식이 인위적이고 '의식적'으로 구축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질병'에 의해 무너뜨린다. <유령가구 Ghost furniture>에서 보면 계단을 오르는 행위의 시간적 연속성은 그 행위의 끊임없는 반복과 단절에 의해 무너져 버린다. 여기에 더하여 모니터 자체의 기계적 전후운동은 계단을 오르는 행위의 방향과 중첩되면서, 그러한 행위가 지니는 일정한 시간, 방향, 서사성을 '과잉되면서도 동시에 결핍된' 것으로 변형시켜 버린다.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과 역류, 통합된 자기의 전진과 후퇴가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분열된 상황과 맹목적 반복에 의해 모호한 '복수적 자기'들의 증식이 이루어지고 종말없는 시간의 감옥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붕괴된 주체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은 공격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결핍의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질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공격성이 아닌 이유는, 이러한 행위들이 자기의 의식에 대한 '의식적' 저항이나 혁명, '순수함의 추구' 같은 유토피아를 향한 공격적인 욕망의 정반대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도발성이나 과잉된 작가적 의식으로 작품을 분장하는데 익숙한 최근의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육태진이 보내는 메세지는 바로 이것 - "자신의 의식이 아닌, 신체와 질병을 사랑하라"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결코 자기의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 그 자체는 의식적이지 않는 자아와 관계맺는 에고의 의식일 뿐이다. 그것은 주인의 의식이 아니라, 그 자체는 의식적이지 않은 주인과 관련 맺는 노예의 의식인 것이다" (질 들뢰즈).